

# 한국·대전디자인진흥원, AI 디자인법률특강 성료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5.10.01 16:45

30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대전디자인진흥원이 함께 개최



30일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유니버스홀에서 "AI가 만든 디자인, 누구 것일까?"를 주제로 한 디자인권리보호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30일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유니버스홀에서 "AI가 만든 디자인, 누구 것일까?"를 주제로 한 디자인권리보호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전공 학생,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번 특강은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AI 기술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 보호 현황을 알기 위해 기획되었다.

강사로 나선 법률사무소 아티스의 서유경 변호사(디자이너 출신 법학박사)는 생성형 AI가 디자인 산업에 가져온 변화와 그에 따른 법적 공백을 조명했다. 그는 현행법의 한계와 국내외 사례들을 큰 틀에서 설명하며,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창작 자산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적 관점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이창기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디자인의 가치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디자이너들의 권익을 보호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